

'문화로 포용하고 관광으로 치유하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도내 문화예술·관광인 함께하는 신년인사회 가져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19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도내 문화예술·관광인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 - 문화로 포용하고 관광으로 치유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이번 신년인사회는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교육감, 소재호 전북예총회장, 조오익 관광협회장 등 도내 문화예술·관광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경운 재단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2024년 재단 주요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열린 부대행사로 제1회 예술·관광상 시상식을 했다. 예술관광상은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관광산업에 동력을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 마련했다. 수상자는 단체수상에 디자인에보, 사단법인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예우, 전주소년소녀합창단, 아크빌, 개인수상은 이종근, 이흥재, 이기훈, 전호갑, 양진성, 심재균 등이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참석자 전원이 함께하는 단체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이는 앞으로 백년의 특별하고 새로운 문화예술과 관광 발전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장에 참여 예술인들로 구성된 퍼포먼스가 축하공연을 펼쳐 의미를 더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9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도내 문화예술·관광인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2024년 도민 모두 원하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길 바란다"며 "지난해 전북을 잘 표현하는 단어는 '도전'과 '성공'으로, 특히 문화예술, 관광 부문이 눈에 띄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새롭게 거듭난 특별자치도와 함께 새로운 백년을 '도전경쟁'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함께 걸어온 128년, 더 특별한 100년,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관광의 무한한 미래를 도민과 함께 하나 되어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기획정책팀(063-230-7413, 7414)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성공한 사람들 숨어 있는 스피치 기법

김양욱 스피치옹변인협회 전북회장 '행복한 스피치' 출간

'무심코 쓰는 단어가 당신의 일생을 결정한다.' 좋은 입버릇은 성공하는 버릇 만들고, 복이 굴러 들어오는 사람으로 만든다.

(사)한국스피치옹변인협회 김양욱 전북회장이 성공과 행복의 길잡이 '행복한 스피치'를 출간했다.

작가에 따르면 이 책은 성공한 사람들의 숨어 있는 스피치 기법으로, 그간 신문에 게재된 칼럼을 모아 내놓은 것이다.

'행복한 스피치'는 총 3부로 구성됐다.

먼저 1부에서는 김양욱 칼럼을, 2부는 어머니·고향을, 마지막 3부에서는 사진으로 보는 스피치 활동을 다뤘다.

특히 '작가는 책을 펴내며...에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말은 들으면서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고, 삶의 에너지를 갖는다. 말을 통해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상대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진다.

또한 말을 통해 위로도 받고, 감동과 감화도 얻는다. 그래서 말을 잘하면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지만 말을 잘못하면 인생이 나쁜길로 가게 만들 수도 있다.

끝으로 작가는 48년 동안 스피치 지도사로 살아온 기법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원고를 정리하면서 지난 세월동안 옆에서 도움을 준 아내와 스피치인, 평생교육원우, 특히 함경식님, 황금석님 등 도움을 준 모



든 분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다짐도 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작가는 장수 출생으로 전주 영생고, 전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군산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현재 (사)한국스피치옹변인협회 전북회장,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회장, 전주매일신문사 부사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한국·몽골' 전통음악 한자리에

국립민속국악원, 27일 문화예술 어우러지는 동행 공연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한국과 몽골 양의 문화 유대를 강화하고 전통예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동행(同行)을 공연한다.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한국과 몽골 양의 문화 유대를 강화하고 전통예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동행(同行)을 공연한다.

동행 공연은 몽골의 전통적인 '후미의 4가지 소리'로 시작해, 한국의 '사절가', '취여농창', '달타령'과 같은 전통 음악, 및 아리랑과 몽골 민요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관객들은 이를 통해 한국과 몽골의 전통 음악을 한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번 공연에는 강볼드 발진남(후미), 수크바타르 투르바트(마두금), 엔흐 바타르 자르갈마아(무용) 등 몽골의 유명 예술인들과 조옥선(가야금), 김승정(해금), 안명주(무용) 등 국립민속국악원 국악단원들도 무대에서 양국의 전통예술을 합동 연주로 선보일 예정이다.

김중현 원장은 "한국과 몽골은 깊은 역사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행(同行)' 공연을 통해 두 나라의 예술과 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연이 한국과 몽골의 문화예술 교류를 넘어 더 넓은 아시아 문화 연대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시민예술단, 사랑의 온도탑 올리기 동참

지난 19일 군산시민예술단(대표 송덕재)에서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군산시에 전달했다.

군산시민예술단은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22명의 회원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지난해 가을 공연사업, 서해안시대 예술사랑 문화공연 사업 등을 활발하게 진행한 바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송덕재 대표는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

음으로 기탁을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꾸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임준 군산시장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귀한 성금을 전달해 주신 군산시민예술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기탁을 통해 이웃에 대한 온정이 널리 퍼져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